



이대진

전통의 라이벌 “화끈하게 붙자”

금주의 프로야구

‘전통 라이벌 담게 화끈한 화력쇼로 맞붙자’ 시즌 초반 중위권을 맴돌고 있는 KIA가 어린이날(5월5일)이 끼어있는 5월 첫째주(1~6일) 중·하위권인 롯데, 한화를 제물로 선두권 진입에 나선다. KIA는 21경기를 마친 지난달 30일 현재 10승11패로 1위 SK와 3.5게임차, 4위 롯데와 1게임차 단독 5위에 랭크돼 있다. 한화는 8승1무10패로 7위다. KIA는 우선 올 시즌 첫 격돌하는 ‘전통 라이벌’ 롯데와의 원정 3연전이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KIA는 일단 1일 첫 경기 선발투수로 이대진을 예고했다. 부상을 딛고 올 시즌 화려하게 부활한 이대진은 1승 2패 방어율 2.70으로 괜찮은 성적표를 유지하고 있다. 초반만 버텨준다면 신용준-한기주의 필승 계투조가 투입돼 경기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롯데의 선발로 예고된 이상목은 시즌 1승1패 방어율 4.97로 부진한 모습이다. 특히 지난달 19일 삼성전서 2.1이닝동안 5자책점으로 무너지는 등 최근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는 것도 반갑다. 이현곤(타율 0.347)-장성호(0.213)-홍세완(0.

KIA, 롯데와 3연전 선두권 진입 큰 고비

Table with 6 columns: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Lists teams SK, 삼성, LG, 롯데, KIA, 한화, 두산 with their respective stats.

269)-서튼(0.288)-이재주(0.278)로 연결되는 KIA의 중심타선이 단 한차례라도 집중력만 보여준다면 낙승이 예상된다. 다만 최근 5경기에서 18타수 1안타 타율 0.056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재주와 홍세완(5경기 평균타율 0.235)의 침묵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대호

지난 해 하위권에 머물렀던 롯데는 올 시즌 초부터 팀 타율과 평균자책점에서 1위를 질주하며 위력적인 강팀으로 급부상 중이다. 타선에선 박현승(타율 0.347)-이대호(0.387)-호세(0.267)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이 매섭다. 매 경기 3~4점씩을 뽑아내는 득점력도 일품이다. 특히 이대호는 75타수 29안타 6홈런, 18타점, 타율 0.418로 고강도의 방망이 감각을 뽐내고 있다. 최근 5경기서도 18타수 8안타 2홈런 6타점(타율 0.444)을 기록중이다. 또 최근 5경기에서 18타수 6안타 타율 0.333으로 불꽃타를 터뜨리고 있는 박현승도 위협적이다. 마운드에선 ‘에이스’ 손민환과 열중석 외엔 그리 믿음직스럽지 못하지만, 팀 방어율 1위(3.16)의 기록이 말해주듯 중간진과 마무리의 활약이 돋보인다. 여기에 매 홈경기마다 2만여명이 운집하는 ‘부산(마산) 갈매기’의 열혈 응원도 변수다. 힘겨운 주중 3연전을 넘기고 나면 주말엔 대전 한화와의 3연전이 기다리고 있다. 구대성의 부상으로 뒷문이 뚫린 한화는 날개짜임 독수리로 비유될 정도로 최근 부진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범호, 김태균 등 ‘한방씩’을 지닌 거포들이 서서히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진우 빠르면 10일 첫 선

KIA ‘토종 에이스’ 김진우(24)가 빠르면 오는 10일 광주 LG전서 시즌 첫 선을 보인다. 서정환 KIA감독은 지난달 30일 “(김)진우의 등판 날짜를 10일로 잡아놓고 복귀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감독은 “어린이날(5일) 선발로 올릴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해 무산됐다”면서 “다행히 최근 통증이 사라지면서 정상적으로 볼펜치침 중이다. 일단 6일 2군 연습경기에서 테스트를 거친 뒤 상태가 좋으면 1군으로 올려 3일 휴식 뒤 선발로 내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 감독이 말한 ‘상태가 좋으면 1군에 올린다’란 단서 조항처럼 변수는 있다. 언제 또 고질병인 어깨 통증이 재발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서 감독은 “사실 (김)진우는 버릴 수도 꺼



안을 수도 없는 존재다. 믿고 있으면 아프다고 한다. 그래서 시즌 초부터 전례 외로 분류해 봤다”면서 “진우만 복귀해 준다면 마운드에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고민을 털어냈다. 서 감독의 이같은 고민은 현 선발로테이션에 있다. 현재 KIA 선발진은 윤석민-이대진-에서튼-전병두-양현종으로 돌아가는데 부상경력이 있는 이대진은 5일 휴식이 필요하고, 에서튼은 최근 오른쪽 팔꿈치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여기에 시즌 초 기대를 모았던 양현종도 경기를 거듭할 수록 제구력 난조를 보이고 있다. 김진우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서 감독은 “(김)진우만 올라와 준다면 양현종을 불펜으로 돌려 허리를 튼튼히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새내기 만나온 데뷔무대 5위

LPGA 코로나 챔피언십

새내기 만나온(19)이 어렵게 찾아온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데뷔 무대에서 5위를 차지하는 돌풍을 연출했다. 만나온은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멕시코 모렐리아의 트레스 마리야스 레시덴티알골프장(파73·6천600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코로나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1언더파 72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79타로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공동 선두 그룹에 1타 뒤진 채 최종 라운드에 나선 만난은 LPGA투어 사상 56년만의 데뷔전 우승이라는 드라마를 쓰는 데는 실패했지만 기대 이상의 데뷔 무대 성과를 거뒀다. 만나온은 신지에(19·하이마트), 김승희

(19·윌라코리아), 김인경(19), 김하늘(19·코오롱) 등과 함께 고교 시절 주니어 무대를 주름잡던 '88년생 군단'의 일원. 국가대표 상비군을 거쳐 지난해 12월 LPGA 투어 웰리파인스를 공동18위에 올라 LPGA 투어 회원이 됐지만 전경기 출전권을 받지 못해 빈 자리가 있어야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대기 선수 신분이다. 4언더파 69타를 친 배경은(22·CJ)이 공동6위(12언더파 280타)를 차지, 한국 선수는 단 두 명만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우승컵은 1999년부터 LPGA 투어와 유럽 여자프로골프투어를 오가며 내놓을 만한 성적없이 세월만 보냈던 무명 실비야 카바렐리(이탈리아)에 돌아갔다. 카바렐리는 7언더파 66타를 뽑아내 5타를 줄인 홈코스의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에 2타 앞선 20언더파 272타로 정상에 올랐다.

버플랭크 6년만에 우승

PGA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

베테랑 스코트 버플랭크(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EDS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에서 6년만에 우승트로피를 거머쥐었다. 프로 데뷔 21년째를 맞은 버플랭크는 지난달 30일(한국시간) 텍사스주 어빙의 포시

즌스TPC(파70·7천22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6타를 쳐 최종합계 13언더파 267타로 선두였던 투크 도널드(잉글랜드·12언더파 268타)를 1타차로 따돌리는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재미교포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은합계 이븐파 280타로 공동 51위에 머물렀고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도 함께 8오버파 288타로 71위에 그쳤다. /최재홍기자 lion@kwangju.co.kr



조선대 김덕현 대회신 도약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6회 전국중별육상선수권대회 세단뛰기 남대부 결승에서 16m77의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한 조선대 김덕현이 힘찬 도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호 빅리그 복귀

오늘 플로리다전 선발 등판

마이너리거로 내려갔던 박찬호(34·뉴욕 메츠)가 메이저리그에 복귀, 1일(한국시간) 정규시즌 경기에 처음 선발투수로 출격한다. 박찬호의 국내 매니지먼트사인 팀61의 김만섭 대표는 지난달 30일 “박찬호가 1일 오전 8시10분 세이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플로리다 말린스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고 전했다.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출장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소속이던 10월4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날스와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1차전 때 중간계투로 나선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마지막 선발 등판은 5이닝을 3실점했던

지난 해 8월12일 휴스턴 에스트로스전이였다. 박찬호는 휴스턴전 이후 갑작스런 장출혈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42일 만인 같은 해 9월29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불펜 투수로 복귀전을 치렀다.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전격 복귀는 메츠의 제2선발 올랜도 에르난데스의 부상이 결정적이었다. 5월1일 플로리다전 선발로 예고됐던 에르난데스가 어깨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구단이 트리플A 뉴올리언스에 있던 박찬호를 긴급 호출한 것. 박찬호는 지난 해까지 3년 간 플로리다전에는 한 차례 등판했으나 6.2이닝 8안타 5실점으로 좋지 않았고, 세이스타디움 등판 기록은 없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달 30일 원도 농어문화체육센터에서 ‘제 34회 전국 대학 태권도 개인 선수권 대회’ 개막식이 열린 가운데 참가 선수들이 퍼어플레이를 다짐하고 있다.

완도서 대학 태권도선수권 개막

1,300명 참여 4일까지 열전

전국 대학 태권도 큰 잔치인 ‘제34회 전국 대학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가 지난달 30일 ‘건강의 섬’ 완도에서 개막됐다. 오는 4일까지 5일간 완도 농어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남자부 4개조, 여자부 3개조로 나눠 체급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수단 1천300명, 임원 및 가족 600여명 등 2천여명이 참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게 된다. 전국대학 태권도 개인 선수권대회는 34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 대회로 그동안 우리나라 태권도국가대표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뒷받’ 역할을 해왔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이번 대회는 참가 인원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 큰 규모 때문에 그동안 시(市)단위에서만 열렸으나, 완도군이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 활동으로 유치에 성공, 대회 사상 최초로 군 단위에서 개최하게 됐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각종 전국대회가 완도에서 열릴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다”면서 “완도를 찾은 선수단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음식 숙박업소에 대한 친절교육, 자원봉사 활동 등 대회기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